



“아들아, 내 아들아”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하루를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고 이정연 열사의 어머니 구선악(82) 여사가 오열하고 있다.

/뉴스

## 5·18 42주년 추모 열기 뜨거워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참배객 규모 예년 수준 회복  
“교과서에 상세하게 다뤄졌으면” “헌법 전문 수록을”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을 하루 앞둔 17일 오월 영령의 뜻과 정신을 계승하려는 참배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지난 2년 간 주춤했던 참배객 수도 예년 수준을 회복하며 추모 열기가 뜨겁다.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뜻을 바쳐 헌신한 오월 영령들을 기리기 위한 참배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단체 참배에 나선 중학생들은 열사들의 행적을 전하는 해설사들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지그시 감으며 오월 광주의 아픔을 되새기는 모습이었다.

나주 남평중학교에 재학 중인 조영

길(16)군은 박관현 열사 묘를 참배한 뒤 “열사들의 눈물 겨운 투쟁 과정이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이어 “참배를 통해 열사들이 무얼 위해 싸웠고 어떻게 숨지셨는지 잘 알게 됐다”면서 “학생들이 5·18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교과서에서 5·18 관련 내용을 자세히 다뤘으면 한다고 전했다.

홍용학(60)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사업국장은 나병식 열사의 묘소 앞에서 먹먹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나 열사는 전 국민 주청년 학생총연맹을 처음 구성한 당사자이자 민주화에 헌신한 등불 같은 존재였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출범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분이기도 하다”며 “그의 빛나는 5월마다 너

무 크게 느껴진다. 살아계셨을 적 목소리며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다. 하늘 위에서는 평온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정근(62)씨는 박금희 열사와 면 친척 정도 된다고 밝히며, 박 열사 묘소 앞에 자그마한 국화 꽃바구니와 자신의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남겼다.

42년 전 계엄군의 무자비한 총칼에 가족을 잃은 5·18 유족들도 추모 제례를 마친 뒤 묘역에서 가슴 속 응어리를 눈물로 쏟아냈다.

이정연 열사의 어머니 구선악(82) 여사도 일 년 만에 만나는 아들의 묘소 앞에서 가슴앓이하며 울분을 터트렸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를 연신 외치는 목소리는 갈라질 대로 갈라져 묘소 허공에 메아리쳤다.

광주시민 최인수(43)씨는 “참배를 통해 민주주의의 참 의미를 다시 되새겨본다.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데려갈 흔들리지 않는 5·18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

## 광주양궁월드컵 개막…38개국 금빛 열전

예선 광주국제양궁장·결승 광주여대

안산 등 세계 정상급 선수 대거 출전

38개국, 381명의 선수단이 국가의 명예를 걸고 양궁 실력을 겨루는 광주양궁월드컵이 막을 올렸다.

17일 광주 남구 광주국제양궁장에서는 ‘광주2022현대양궁월드컵(2차전)’이 개막해 오는 22일까지 6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 등 세계 38개국, 381명(선수 270명·임원 111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활시위를 당긴다. 경기는 리커브·컴파운드 두 종목에 남·여·혼성 단체전, 남녀 개인전 등이 펼쳐지며 총 10개의 금메달을 놓고 기량을 펼친다.

결승전은 21일과 22일 이를 동안 광주여대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특히 이번 대회는 9월 항경우아시안게임 연기로 세계랭킹 1위인 안

산(광주여대)과 미국의 브래디 앤더슨 등 정상급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다.

컴파운드는 네덜란드의 마이크 술로세르와 클롭비아 사라 로페즈가 출전한다.

지난 4월 터키에서 열린 양궁월드컵 1차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도 대거 참가했다.

지난 대회 1위인 알바리노 가르시아 미구엘(스페인)과 브라이언 피트먼(영국)이 리커브에, 마이크 술로세르(네덜란드)가 컴파운드에서 금빛 화살을 겨냥한다.

한국은 이가현(대전체육회)·강채영(현대모비스)·안산·최미선(순천시청)이 여자부 리커브에 출전하며, 남자부는 김우진(청주시청)·

김제덕(경북일고)·오진혁(현대제철)·이우석(코오롱)이 이름을 올렸다.

컴파운드 여자부는 김윤희·송윤수·소채원(이상 현대모비스)·오유현(전북도청), 남자부는 김종호·최용희(이상 현대제철)·양재원(울산 남구청)·강동현(대구양궁협회)이 메달을 겨냥한다.

광주양궁월드컵은 이날 경기장 적응을 위한 공식훈련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으며 오후 각 종목별 예선전이 펼쳐진다.

광주시는 선수들의 부상예방과 회복 등을 위해 스포츠과학 부스를 마련하고 현장지원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2025세계양궁대회를 앞둔 전초전이다”며 “세계 정상급 양궁선수들이 광주에서 기량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

## 광주 찾은 이재명 “임 행진곡 논란 더이상 안돼”

국립 5·18민주묘지·민족민주열사 묘역 잇따라 참배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인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5·18민주화운동 42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지에서 이한열 열사 묘를 참배하고 있다.

연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도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정치 세력이든 국민 삶과 국가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면 당연히 그 길로 가야한다.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또 “이번 5·18 기념식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신다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것이나 말 것이나 국민 감동을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빼 있는 말을 남겼다.

/김도기 기자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투표로 밝히는 온 동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

일시: 6월 1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장소: 지정된 투표소

투표안내문 또는 내 투표소 찾기(nec.go.kr)에서 확인 가능

사전투표

일시: 5월 27일(금)~5월 28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 가능

※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선거정보 등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바로가기  
nec.go.kr

###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선거 알아보기!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7장



•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

• 구·시·군의원선거(지역구)에서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사법 도입  
(전국 11개 국회의원선거구)

\* 투표 시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함

교육감선거 더 알아보기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이 없으며  
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별로 후보자 이름  
배열순서가 바뀝니다.  
※ 세종시와 제주도는 시·도의원 지역선거구별로 순차 배정

### 투표소 가기 전, 정책·공약 확인하기!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 방문

선거방송토론회 주관의 후보자토론회 시청

### 투표소 갈 때 꼭챙기기!

신분증과 마스크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단, 화면 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 불가)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유권자의 한 표 한 표를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많은 인력과 장비, 시설이 일시에 동원되며 3천여 명의 선관위 직원뿐만 아니라 투·개표 사무 종사자, 참여하는 유권자 그리고 정당·후보자까지 모두 함께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 선거사무 필요 인력: 사전투표 약 10만 명, 선거일 투표 약 19만 명, 개표 약 9만 명

\* 선거사무 필요 시설: 사전투표소 약 3,500 개소, 투표소 약 14,500 개소, 개표소 약 260 개소

선거법규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

정치인의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